

“출협회장 직선제로 선출한다”

정관개정안 찬반투표에 찬성 672표... 94년 1월부터 발효



지난해 1월2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서 치러진 45차 출협 정기총회.

대한출판협회(회장 김낙준)은 지난해 1월22일 제45차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개정안을 작성하고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결의에 따라 지난 10월28일에 열린 '92년 제3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정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 관한 서면결의를 위해 우편투표를 실시했다.

지난 12월9일 발표된 이번 우편투표결과 투표자수 695명중 찬성이 672표 반대가 20표 무효가 3표로 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출협회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다.

새로 마련된 정관은 출협의 회세 신장과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변경사항은 총 12개조항에 이르고 있다. 개정된 정관의 중요사항으로는 회장, 감사, 전형위원 선거 방법을 직선제로 개정한다는 것이 있어 주목된다. 새로 개정된 정관에는 회장 선출시 피선거권자는 협회 이사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부회장도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했으며 그 중 1인을 상근 부회장으로 '둘 수 있다'고 하여 회

장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감사의 권한을 업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회원변경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 명칭, 상호, 조직, 사무소 주소지, 대표자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 신고를 명시했다. 회원 2인의 추천제도를 삭제해서 협회 가입자격도 완화했으며 경영과 자본의 분리에 따른 실질적인 대표와 등록상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감안해 회원자격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한편 “정관의 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는 이전의 정관 내용도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를 의무이행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고 정관 개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사전 심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정관은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 실시된다.

잡지협회, 잡지박물관개관식거져

한국잡지협회(회장 김수달)는 구한말에서 현재까지 1백년 동안의 우리나라 잡지 발달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잡지박물관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잡지회관 2, 3층에 마련, 지난 12월 1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개관식을 가진 잡지박물관은 세계최초의 잡지전문 전시공간으로 문화부의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지난 7월 등록, 4개월 동안의 전시물 분류작업을 거쳐 개관됐다. 상설전시장, 특별전시실, 수장고, 강당 등 1백여평 안에 3천여종의 잡지 3천8백점을 9개시기별로 분류, 상설전시하고 있다. 전시 및 소장자료로는 회귀분류 창간호 574점과 근대 창간호 2천5백점, 잡지관련 참고자료 64점, 전질 잡지류 1천561점 등이다.

「태백산맥」인지공방전서 한길사 승소

재판부 “가짜인지 인정할 증거없다” 조씨 청구기각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17부(재판장 김진영부장판사)는 지난 12월 4일 소설「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가 도서출판 한길사대표 김언호씨를 상대로 낸 출판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가짜인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길사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한길사가 「태백산맥」 10만여권을 자신이 내주지도 않은 인지를 붙여 발간했다고 주장하나 조씨가 교부한 인지의 총수가 167만장이고 한길사가 출간한 이 소설이 같은 수인 167만여권이어서 출판사측이 인지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래씨는 86년8월 한길사와 소설 「태백산맥」의 출판계약을 체결했으나 “한길사측이 출간도중 10만 4천여권의 가짜인지를 붙여 불법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즐거운 사라」 관련 첫공판 열려

소설 「즐거운 사라」의 내용과 관련, 음란물 제조 및 반포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광수씨와 장석주씨에 대한 첫공판이 지난 12월3일 서울형사지법 석호철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인 모두진술 및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한편 14일자로 출판사 등록이 취소된 청하는 당분간 89년에 등록을 한 「언어의 세계」라는 명칭으로 책

謹賀新年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로
위대한 책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1993년 새해아침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상무이사 유도열

謹賀新年

아름답고 뜻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3년 새해아침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박忠一

전무이사 李正相

謹賀新年

우리의 미래, 책 속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993년 새해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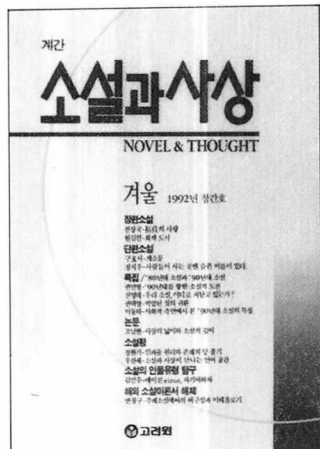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金洛駿

사무국장 李斗暎

을 내기로 하고 '청하'라는 명칭 대신 '청하출판사'라는 이름으로 강남구청에 출판사 등록 서류를 냈다.

고려원, 계간「소설과 사상」 창간

고려원(대표 김낙천)이 계간「소설과 사상」을 겨울호로 창간했다.



소설전문지 「소설과 사상」

조남현씨가 주간으로 참가하고 있는 「소설과 사상」은 국내 유일의 소설 전문지로 "21세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설과 그 비평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한다는 취지로 창간됐다. 창간호 특집으로 '80년대 소설과 90년대 소설'을 주제로 평론가들의 제언과 논문을 실었다.

'민성사, 저작권 침해' 판결

지난 12월 2일 서울형사지법 형사단독심에서 이준범판사는 민성사 대표 천용숙씨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단법인 한국문예 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홍)가 지난 90년 11월 김동리 외 123명의 저

작권자를 대리하여 「한국명단편선」 및 「한국대표명시선」 등 17종의 도서를 발행한 민성사를 고소함으로써 그동안 2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용숙씨가 금자당(대표 주덕원)이 80년대 초에 저자들과 매절계약을 맺어 「한국대표명단편선」 등을 발행하였던 것을 책의 필름과 지형 및 재고도서를 금자당으로부터 인수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금자당의 매절계약은 인세선불의 의미이지 저작권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따라서 출판사간의 거래로 지형등을 사서 발행 및 배포행위를 한 것이 그동안 출판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범의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민족문화작가회 독자회원제 신설

민족문화작가회의(회장 신경림)는 민족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독자회원제를 신설했다.

일반독자와 작가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될 이 제도는 민족문화의 정당성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앞으로 시인 작가 평론가가 되려는 문학 청년들에게 등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독자회원들은 작가회의가 발행하는 소식지 등 간행물을 매달 받아 볼 수 있고, 작가회의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초대된다. 연회비 1만2천원.

앞새 과학소설감상문 수상자 선정

도서출판 앞새가 주최한 '과학소설 10대들의 독서감상문' 모집에서

대구 상서여중의 최은미양이 금상을 차지했다.

청소년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향상시키기위해 마련된 이번 독후감모집에서 최은미양은 「과학하는 지세」라는 글을 투고해서 금상을 차지했고, 이외 은상은 이주현군(대구 동촌중), 동상은 조희정양(경북 영천여중)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단채상은 부산 덕명여상이 받았다.

「사회평론」 일본에서 번역 출판돼

지난 12월 5,6일 도쿄 학사회관에서 열린 일본의 진보적 학술단체 '포럼 90년대' 총회 자리에서 월간

「사회평론」의 일본어판 「한국부스」 창간호와 「사회평론」의 92년 1월호 별책부록 「한국사회의 이해를 위한 길잡이」를 일역한 「한국사회논쟁」 출판기념회가 「사회평론」 재창간 준비위원회 성유보씨와 편집인 박호성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부스」 창간호에는 리영희, 서중석씨 대담 '미국의 대한전략의 변화와 사회주의의 몰락' 장기표씨 인터뷰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제3의 이념' 박노해 연구 '혁명적 시인인가 시적 혁명인가' 등 91년 5월 창간호부터 92년4월까지 「사회평론」에 실린 글 중 20여편이 담겼다.

출판진흥정책 국가예산 투자 바람직

구급 4일 출판학회 학술세미나서 출판정책 조망



12월4일 열린 출판학회 제4회 학술세미나.

한국출판학회(회장 윤형두)는 지난 12월4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책의 해를 맞는 한국출판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제4회 출판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처음 발표에 나

선 출판연구소 김희락 책임연구원원은 「출판정책의 기본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지난해에 출판가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문화사업의 하나인 출판업도 여느 제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현재의 출

판정책은 최소의 간섭과 최대의 지원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출판 진흥정책 중 추천도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김희락연구원은 이 제도가 "정부당국의 유일한 직접 진흥정책임에도 국가예산으로 시행하지 않고 출판금고의 자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문예물도 포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원을 꼭 해야 할 도서들이 많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 출현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따로 청소년도서를 선정하고 있는데도 이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이임자씨가 「베스트셀러와 한국출판의 현실과 전망」을, 김영익씨가 「도서상품권의 판매활성화 방안과 전망」을 각각 발표했다.

올해 '이달의 문화인물' 일괄선정

문화부는 93년도 '이달의 문화인물'을 일괄 선정해 발표했다.

이는 선정된 문화인물에 대해 각 계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념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부가 선정할 올해 '이달의 문화인물'은 문화 예술계와 교육계 유관단체 및 시민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올해 '이달의 문화인물'은 다음과 같다.

1월 이윤곡, 2월 이인문, 3월 장보고, 4월 이천, 5월 윤극영, 6월 원효, 7월 지식영, 8월 안중근, 9월 박연, 10월 최현배, 11월 장지연, 12월 윤백남.

謹賀新年

양질의 교과서로
다가오는 2000년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993년 새해아침

한국 2중교과서협회
이사장 朱淳昊

謹賀新年

철저한 내용심사로
우수한 학습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3년 새해아침

학습자료협회 회장 林弘造
사무국장 金喆堉

謹賀新年

좋은 책과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3년 새해아침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전무이사 이주영